

六、水平差 實測值

區分	位	置	數	值	備考
一 廓	廻廊址	東北隅 礎石 上面	〇		基準으로
	"	東南隅 " "	一·九	낮음	設定
	"	西南隅 " "	三·八	"	
	"	西北隅 " "	四·一	높음	
	東翼廊	礎石 上面	三·六	"	
	西翼廊	"	五·七	낮음	
	多寶塔	東南 地表	八·四	"	
	釋迦塔	東南 金剛座 上面	二·八	"	
	大雄殿	地台石 上面	二〇·〇	"	
	無說殿	" "	二·二	"	
	西廻廊	中央部 礎石 上面	二·八	높음	
	李朝期	重削 東廻廊址 礎石 上面	五·二	"	
極樂殿	泛影樓下 眼象石柱前長台石 上面	〇		基準으로	
	安養門 東南隅長台石 上面	一·三·六	높음	設定	
	西廻廊址 南端南西隅長台石 上面	一·四	낮음		
	極樂殿 基壇地台石(東南隅) 上面	四·二	"		
	" (西南隅) " "	一·六·七	"		
	" (西北隅) " "	八·八	"		
一 廓	西廻廊址 北端部長台石 上面	六·五	높음		
	" 礎石 上面	一〇·六	낮음		

七、境內石造遺物一覽表

一、礎石	(2) 信防石
(1) 方形礎石 四八개	(2) 八角蓮華竿柱石 一쌍
(2) 方形圓柱座礎石 二九개	四、石柱片(圓柱) 二개
(3) 활주礎石 二개	五、眼象方形上台石 一점
(4) 圓筒形礎石 二개	六、長台石 三〇개
二、고백이	七、八角石材片 一점
(1) 고백이들 一三점	八、石槽 七점

- 九、石漏槽 二점
- 一〇、基壇面石 一五개
- 一一、石燈上台石 一점
- 一二、石燈火舍石片 一점
- 一三、拜禮石 一座
- 一四、石造須彌壇石材 四점
- 一五、井泉蓋石 一점
- 一六、침차돌 四개
- 一七、階段石 一점
- 一八、欄干童子柱 二七개
- 一九、欄干돌란대받침 五점
- 二〇、돌란대片 八점
- 二一、幢竿地台石 一점
- 二二、梅花틀 三점
- 二三、其他石材 二〇점

編輯者註——이 報告는 復原設計를 爲해 發掘 및 實測調査에 參加하였던 現地調査團이 考證委員會에 提出하였던 것을 轉載한 것이다.

# 慶州 西岳 佛像

——仙桃山 및 斗袋里 磨崖三尊佛에 대하여——

## 文 明 大

### 一、序 言

이 小論에서는 慶州의 西岳에 있는 西岳系佛像彫刻에 대하여 살펴보고 고자 한다. 西岳系의 범위를 넓히면 너무 번잡하겠으므로 우선 西岳頂上 磨崖佛과 바로 이웃한 碧桃山磨崖佛에 한정하고자 한다. 두 불상은 언여러가지로 대비되는 磨崖佛들이고 또 新羅彫刻史上 特記할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 二、佛像의 樣式

여기서는 두 불상의 현상을 살펴본 후에 이들 西岳系佛像의 樣式的 特徵과 年代를 고찰하고자 한다.

(一) 西岳(仙桃山) 三尊佛像

西岳의 頂上部에 一大巨岩이 東으로 솟아 있는데, 이 岩石에 巨軀의



圖 1. 慶州西岳里 磨崖佛



圖 2. 慶州西岳里 磨崖佛 左側菩薩

磨崖佛이 조각되었다. 지금은 머리카나 신체 各部가 많이 탈락되고, 암석 자체도 굳어 굳어 깨어져 원모습이 꽤 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磨崖佛이 조각된 岩面은 다른 부분보다 돌출하고 있는데, 이 岩面 옆으로 좌우 脇侍菩薩을 단 돌로 圓刻하고 있다. 이들 보살상의 身部들은 그 아래 계곡에 굴러 있던 것을 文化財管理局에서 수년 전에 옮겨 놓았지만 아직 復元은 하지 않고 있다.

大板金太郎氏が 이 불상들을 調査할 때도 보살들은 계곡에 굴러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랜 옛날, 아마도 李朝末葉 쯤에 이들 불상들이 크게 파손을 입었는데도 모른다<sup>①</sup>. 그러나 이 三尊佛에 대한 記錄은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文獻에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由來되었는지는 거의 알 수 없다. 그런데 聖母祠가 이 山頂에 있었다는 것

은 遺事를 비롯한 東京雜記, 東國輿地勝覽 등의 여러 記錄에 나타나고 있다. 東京雜記에 磨崖佛이라 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祠址가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현존하고 있는 암자 옆에 道光十二年에 된 聖母遺墟碑가 남아 있고, 岩壁에는 「聖母舊基」의 四字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면 불상이 있는 寺院과 인연하여 있었는지도 모른다. 聖母祠의 記錄은 보이는 데 이윽한 寺院과 거대한 磨崖佛에 대한 기록은 왜 안 보이는지 그理由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遺事에는 聖母祠와 관련된 한 寺院의 기록이 보인다. 그것은 「仙桃聖母隨喜佛事條」에

眞平王朝 有比丘尼名智惠 多賢行 住安興寺 擬新修佛殿而力未也 夢一仙女風儀 綽約 珠翠飾鬢 來慰曰 我是仙桃山神母也 喜汝欲修佛殿 若施金十斤以助之 宜務金於予座下 粧點主尊三像 壁上繪五十二佛 六類聖

衆 及諸天神 五岳神君……

이라 한 것이다. 보다시과 安興寺의 新修佛殿과 主尊三像의 꾸밈이 모두 聖母의 諭示로 되었다 한다. 여기서 安興寺의 位置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西岳(仙桃山)과 관련있고, 또 聖母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만은 확실한 것 같다. 비록 聖母의 諭示云云한 것은 허구일테지만, 어쨌든 聖母祠와 관련된 것이 확실하다면 무엇보다도 그 位置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寺刹이 아닐까 한다.

만약 이런 推定이 사실이라면, 이 磨崖像은 「粧點主尊三像」했다는 安興寺의 主尊三像일 수도 — 앞으로 考察을 要하는 것이지만 — 있을 것이다. 遺事에는 主尊의 材料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粧點했다는 사실로 보아 石佛일 가능성이 많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험시보살 뿐 아니라 本尊像도 많은 손상을 입고 있는데, 특히 얼굴의 손상은 심한 편이다. 눈 이상의 얼굴과 머리는 전연 탈락해 버렸다. 이 손상 역시 一九三〇년대의 大板氏가 調査할 때도 그러했던 모양으로 「面部의 上半缺損」이라 기록하고 있다.



圖 3. 西岳三尊 左脇侍觀音菩薩復原圖 (S=20 : 1)

이러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下端部의 얼굴 만으로도 비범한 모습을 짐작케 해 준다.

코는 큼직하며, 입은 꼭 다물었고, 턱은 날카로와 박력있는 윤곽과 함께 힘이 충만하다. 여기에 古拙한 미소가 은연 중에 번지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문 得意의 수법이라 하겠다. 만약 얼굴이 좀 더 부드럽다면 인근한 斷石山 石窟本尊像의 미소와 유사할 것이다. 목은 아주 긴 편인데, 三道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목에서 내려 온 어깨의 선은 둥글어 斷石山像과 유사하지만, 어깨를 움추린 것은 軍威三尊의 本尊과 유사하다. 신체는 볼륨이라고는 전연없이 그냥 원통형으로 되었지만, 이것은 장대한 체구와 施無畏·與願印의 손모양과 함께 佛의 위엄과 힘을 直說하는 것이다. 두 손은 어깨까지 버쩍들어 施無畏·與願印을 하고 있는데, 왼손은 새끼와 무명지를 굽히고 있다. 어깨까지 든 것은 斷石山像에서 볼 수 있으며, 두 손가락을 굽힌 것은 瑞山磨崖佛 등에서 볼 수 있다.

法衣는 通肩인데 가슴 부근에 탈락이 심하여 그곳의 확실한 衣紋은 알 수 없고, U形의 의문이 가슴계에서부터 성글게 표현되고 있다. 이

衣紋은 원래는 층단으로 되었는데도 모르지만, 현재는 거의 선각(線刻)으로 되었다. 양 손목에서 내려온 옷주름은 계단식 縱線紋인데, 이것은 중간에서 사라져 버렸고 하단부의 표현은 잘 알 수가 없다. 하여튼 이 法衣는 신체를 全面的으로 감싸 버려 신체의 量感은 배제되었다.

脇侍菩薩들에 대해서는 秦弘燮教授의 언뜻이 이미 있었다. 그것은 分離된 채로 있는 部材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復元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살들을 秦教授의 언급처럼 別石으로 마련한 이유는 本尊이 돌출한 岩面에 새겨져서 보살상을 새길 공간이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

좌·우보살은 모두 파괴되어 몇 개의 조각(片)으로 분리되어서 本尊 옆에 굴러있다. 이들을 맞추면 완전한 一羈의 菩薩로 復元된다. 여기서 가장 특수한 것은 臺座이다. 현재 臺座는 완전한 셈인데 신체의 不端部를 꼭 깎아서 U형의 턱걸이 받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독립된 圓刻像을 세워두기 위한 方便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左脇侍菩薩이라 생각되는 것은 臺座까지 四個로 분리되었다. 머리부분과 목에서 下體 중간까지, 그리고 下體 下端부와 발이 딸린 臺座의 四부분인 것이다. 머리와 몸, 그리고 대좌를 연결시켜보면 정확하게 맞아 서 像의 全體높이가 四·〇五m나 되며, 臺座높이를 합하면 四·四〇m나 되고 있다.

머리부분은 목까지 남아있는데, 머리에는 三山寶冠을 쓰고 있다. 寶冠 중앙에는 化佛이 조각되었지만 마멸되어 희미하게 보인다. 머리 頂部에 흠이 있고, 또한 머리 중앙을 一周하여 흠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별다른 수식(外冠)을 했던 흔적이라 생각된다. 얼굴은 기름하며, 윤곽선은 아주 부드러운 살이 적당히 써서 부드럽고 우아한 얼굴이 되었다. 눈은 가늘고, 코는 큼직하여 시원스러우며, 입술은 살포시 다물었는데 여기에 보조개를 나타내어 아름답고 은은한 미소를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미소는 어느 巨匠이 心血을 쏟아 완성하였을, 정말 天下逸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목에서 내려온 신체는 대체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았지만 다리 중간쯤에서 끊어졌다. 이 部分을 秦教授는 後代作

으로 보고 있으나, 수법도 동일하고 각 부분도 꼭 맞게 연결되기 때문에 左脇侍菩薩의 上體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끊어진 부분을 이어보면 하나의 완전한 身部를 갖추게 된다. 이 신체는 本尊佛에 비하면 훨씬 섬세하고 부드러운 편이다. 여기 上體는 굴곡도 꽤 잘 나타나며 線도 무척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그러나 下體로 내려올수록 옷속에 싸여서 굴곡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生硬感마저 주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臺座에 끼도록 한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제약인 것 같다. 제일 아래부분은 前面으로 일단의 턱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을 대좌에 꼭 걸 수 있게 하여 대좌와 한 돌로 조각된 발에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발은 발가락 부분만 표현하였는데 보통 三國時代에 보이던 古式이다.

왼 손은 내려 寶瓶을 잡고 있으며, 바른 손은 가슴에 들어 손바닥을 보이고 있다. 오른 팔이 약간 꺾여서 좀 어색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印相은 寶冠의 化佛과 함께 觀音菩薩인 것을 알려준다. 가슴에는 목거리 장식이 있는데 중앙에 凸形의 寶珠를 조각하고, 그 밖으로 二條線을 마련하였다. 목거리의 중앙에는 큼직한 花紋을 장식하고 있다. 上體는 天衣의 표현이 없는 것 같지만 잘 구별할 수 없고, 「상가티」 정도는 들렀을지도 모른다. 양팔에는 天衣가 휘감겨 있으며, 허리에는 裳衣의 접합이 나타나 있다. 이것을 맨 뒤는 花紋을 하나 그리고 있으며, 여기서 옷주름이 세가닥 내려지고 있다. 양팔에서 내려온 三段의 옷주름(被帛)은 다리 上端과 下端에 각각 걸치고 있는데, 軍威三尊觀音像의 그것 보다는 훨씬 아래로 내려지고 있다. 옷주름의 아랫쪽부터는 양다리에 각각 U形衣紋과 중앙에 세로衣紋이 묘사되었는데 모두 십약한 線條紋이다.

臺座는 앞에 말했듯이 꼭 특수한 것인데, 원통형 돌을 前面만 파서 여기에 몸의 무릎 이상까지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表面에는 衣紋을 표현하고 있으며, 발 아래는 復瓣蓮花紋을 伏蓮으로 조각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대좌형식은 희귀한 예라 할 것이다.

右脇侍菩薩은 五片으로 절단되었다. 즉 머리와 목에서 배까지, 그리고 다리 上部와 下部 및 대좌이다. 여기에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간 것

까지 하면 六片으로 된 셈이다. 그러나까 左菩薩像 보다는 파괴가 훨씬 심한 편이지만, 전체 높이는 左보살과 똑 같아 재대로의 원모습은 찾을 수 있다. 머리에는 높은 寶鬘가 있는데 前面을 U形으로 파서 어떤 장식을 꽂았던 모양이다. 얼굴은 左보살과 흡사하지만, 직사각형에 가까운데다 눈도 바로 뜨는 등 보다 남성적인 기풍이 보인다.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고 寶髮도 나타나고 있으며, 코끝은 다소 마멸되었다. 체구 역시 左보살과 같으며, 목거리, 衣紋 등도 거의 같다. 왼팔이 절단되었지만 그것을 이어보면 두손은 가슴에 모아 꽃송이를 잡은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左보살은 淨瓶과 化佛로 보아 觀音菩薩이 거의 확실하며, 右보살은 大勢至라 추정된다. 따라서 本尊佛은 당시에 유행되던 阿彌陀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碧桃山 磨崖三尊佛

碧桃山은 西岳인 仙桃山の 바로 지척에 있는 山이다. 山 이름이 示唆해 주고 있는데 西岳과는 뉘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凡西岳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불상은 碧桃山の 主峰에서 東으로 뻗은 작은 봉우리의 서쪽 암벽에 西向하여 조각되어 있다. 이곳을 좀 더 살펴보자. 建廳에서 慶州로 가다 보면 金尺里古墳群 등 古墳密集地帶와 毛良部の 中心地라 생각되는 毛良里 들(野)이 나타나는데 이 東쪽 山이 碧桃山이며, (여기에 街道를 끼고 碧桃山의 아늑한 골짜기가 전개된다. 골짜기 임구는 바로 斗笠里 마을이 되고, 북으로 마주 보이는 곳이 法興王陵 등이며 작은 봉우리를 넘어 멀리 동쪽으로 南山 鮑石溪의 三體石佛이 보인다. 또한 이 위치는 西岳三尊의 正南이기도 하거니와 같은 緯度上에서 西岳佛은 東向하였는데, 이 불상은 西向하고 있어서 두 불상이 묘한 콘트라스트(對比)를 보여준다.

여기는 三尊佛을 중심하여 石窟寺院形式의 寺址가 남아 있지만, 文獻의으로는 전연 알 수 없다. 이 불상은 역시 근세에 와서 大板氏에 의하여 調査된 적이 있었는데, 그는 「天然岩石에 釋迦三尊이 半肉彫로 刻해 졌다」고 언급하였었다③.

이 불상이 조각된 岩面은 높이가 약 三、五〇m 정도이며, 幅은 五m 정도인 小磨崖인데, 이 前面은 一段의 평면(岩石과 비슷한 크기)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아래는 또한 얇은 낭떠러지이다. 磨崖上面은 緩傾斜를 이루는 바위인데, 여기에는 落水溝와 木造架構 구멍이 있다. 이러한 上面의 처리로 보아 前面의 平面에는 역시 前室을 架構했던 磨崖石窟로 아주 아담한 構造였을 것 같다.

三尊 모두 落水와 이끼로 더럽혀진 외에는 전연 손상이 없는 완전한



圖 4. 慶州斗笠里 磨崖佛



圖 5. 斗袋里 磨崖三尊佛 (S=30:1)

불상들이다.

本尊의 머리는 素髮인데 肉髻가 낮고 머리가 커서 모자를 쓴 것처럼 보인다. 額髻는 살이 찢지만 눈, 코, 입 등의 맴쳐있는 처리로 미소가 무심히 번지고 있다. 이 미소는 미련스런 표정으로 흐르는 額鬚을 豐麗한 것으로 정착시켜 주는 要素라 하겠다. 이러한 頭部의 수법은 바로 掘佛寺 西面 本尊像과 흡사한 것이다.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며, 어깨는 당당하고, 가슴은 넓다. 신체의 골목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자세역시 머리와 배가 더 나은 三曲자세로 이상적인 것이다. 왼손은 가슴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바른손은 그냥 쭉 뻗치고 있다. 발은 앞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옆으로 벌였는데, 이것은 정주 남산 또는 同系の 斷石山石窟의 菩薩像 등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지만, 本尊으로서서는 희귀한 예라 하겠다.

法衣는 通肩이다. 이렇게 양 어깨로 내려진 자락은 무릎부분에서 M形으로 날카롭게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것에는 지그자그의 주름(褶皺)이 표현되었지만 축 늘어져 장식적으로 되었다. 배에는 띠와 띠매듭이 보이며, 양다리에는 빗진 V형의 의문이 있다. 法衣 아래로는 裙衣의 자락이 내려져 발까지 덮고 있지만 헐이 없다. 전체적으로 衣紋들은 얇고 유려하지만, 또한 장식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시대적인 어쩔 수 없는 반영이라 하겠다.

발 아래의 臺座는 一段 前面으로突出하게 하여 半圓形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上·下로 仰蓮과 伏蓮을 끝이 날카롭고, 그리고 빗기게 하고 있다. 이러한 臺座手法 역시 南山七佛庵 또는 掘佛寺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光背는 舟形擧身光을 약간 파고 만들었으며, 頭光은 圓形을 陰刻하고 있다.

왼쪽 보살상(左菩薩像)은 한눈에 여성적인 美를 물씬 느끼게 하는 그런像이다. 이 머리는 머리카락을 위로 틀어올려 중간에 동여 맨 것이지만, 寶冠이 없고 寶髻가 커서 佛像의 肉髻를 연상시켜준다. 額鬚은 기름하고 예쁜데, 눈이며 입, 코 모두 적당하게 묘사되어 밝고 명량한

眞象을 돈 보이게 한다. 여기에 잔잔한 미소가 슬며시 번지고 있는 것은 다른 데서 결코 찾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어깨는 반듯하지만 신체는 역시 여성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여기에 본존 쪽으로 몸을 약간 틀은데다 얇은 浮彫의 효과도 결하여 한층 율동적인 신체로 되었다. 왼손은 내려 淨瓶을 잡았고, 바른 손은 들어 엄지와 中指를 맞대고 있다. 이런 印相은 바로 觀音菩薩의 포즈인 것이다. 발은 역시 반듯하게 옆으로 벌리고 있다. 天衣는 역시 휘날어진 것이다. 上體에도 의문가닥이 보이지만 裳衣의 접힘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 의문은 양 다리에 각각 U形衣紋을 표현한 것이다. 天衣의 끝은 옆으로 벌린 발의 곡선을 따라 옆으로 빗기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斷石山菩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光背는 寶珠形에다 圓形線刻 頭光을 마련한 것이며, 臺座는 仰蓮만 그냥 조각하였다.

오른쪽보살상(右菩薩像)도 역시 본존 쪽으로 몸을 틀고 있으며, 모든 수법은 왼쪽 보살과 비슷하다. 머리, 얼굴도 같고, 신체의 굴곡도 동일하다. 天衣 역시 동일하며, 臺座, 光背 또한 같은 스타일이다. 왼손은 내려 무엇을 잡고 있는 포즈인데 새끼손가락만 펴고 있으며, 바른 손은 왼쪽 가슴까지 끌어다 內掌하여 엄지와 中指를 맞대고 人指만 펴고 있다.

이것을 通觀해 보면 本尊은 풍려한 얼굴에 당당한 포즈를 하고 있는 자세이지만, 부드럽고 유려한 技法이 진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좌우보살 역시 같은 수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三尊佛은 本尊의 印相이 阿彌陀印이며, 左보살의 印相은 觀音菩薩의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阿彌陀, 觀音, 大勢至의 三尊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불상들이 西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한 입증되어 지기도 한다. 따라서 앞에서 인용한 大板氏의 釋迦三尊說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C) 樣式的 特徵과 年代問題

지금까지 우리는 仙桃(西岳)와 碧桃山의 兩三尊佛의 現狀에 대해서

살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대체적으로 그들 양식적 특징이 노출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두 불상양식의 비교와 또는 視野를 넓혀 他慶州流派와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거나 年代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작업을 여기서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형태면에서부터 살펴보자. 西岳의 本尊은 七m나 되는 巨軀이다. 이러한 「모뉴멘탈」한 불상은 신체의 어디에나 적용되고 있다. 얼굴도 목도 또한 그러하지만 특히 신체의 세부가 들어나지 않은 圓筒形의 체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어깨가 좀 움추러져 있고 있는 것은 軍威三尊窟의 本尊과 흡사하며, 이와 같은 장대하고 움추러진 것 같은 수법은 奉化北枝里磨崖窟 本尊과 역시 직결될 것이다. 이렇게 不均形스럽다 할까 소박스럽다 할까(非洗鍊), 그런 수법은 上體가 下體에 비하여 훨씬 적은 데서도 지적된다. 더욱이 왼손이 오른손 만큼 올라가서 어색한 감을 더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수법이다. 다만 같은 西岳系佛像인 斷石山石窟의 本尊佛에서 동일한 수법을 볼 수 있다. 이 불상은 꼭 같이 장대하고 꼭 같이 어색한 下均形스러움이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유사한)은 깊은 親緣關係를 直感하게 한다. 그런데 장대하거나 손의 위치 등을 제외하면 斷石山佛像 보다는 오히려 南山拜里三體佛의 本尊과 더욱 유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時代的인 차이에서 오는 相互關係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西岳佛에 비하면 碧桃山 本尊은 형태가 훨씬 줄어들고(二, 五m), 各部의 構成도 꼭 세련되어 新羅盛期の 理想的인 체구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구는 慶州 掘佛寺西本尊佛과 흡사한 것이다. 어깨의 당당함이라든가, 각부 구성의 세련됨은 이 불상이 오히려 앞지르고 있다. 말하자면 이상적인 人體의 형태를 여기서 정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

菩薩像들도 本尊과 유사하다. 西岳의 兩보살들은 四, 四〇m나 되는 巨作이다. 보살상치고 이렇게 巨作인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各部의 構成比率는 좋아지고 있으며, 특히 頭部는 완전한 편에 속한다. 물론 보살상이라는 점에서 本尊과는 달리 보살로서의 적절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본다. 이 점은 軍威三尊佛에서도 역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손이나 발, 또는 下體 등에서 어색한 포즈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碧桃山菩薩들은 이와같이 어색한 형태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주 명량하고 쾌적한 여성적인 비율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머리나 신체 또는 손 등 各部의 표현은 극히 세련되었으며, 이것은 掘佛寺의 南·北面菩薩 등에서나 볼 수 있는 수법인 것이다. 좀 더 나아가 石窟庵菩薩과도 직접적으로 접근될 것이다. 말하자면 西岳菩薩에서 훨씬 진전되어 나타난 것이 이러한 碧桃山菩薩과 같은 쾌적한 보살들이라 하겠다.

이러한 구성비율을 머리와 身部の 비율에서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다

	頭部	·	身部
西岳佛	一	·	三、五(弱)
碧桃山佛	一	·	四 (強)

西岳本尊은 머리가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菩薩像에서 추출한 비율이지만, 本尊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延嘉七年銘佛 또는 癸未銘佛 등의 一·二·五 내지 二·七 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이며, 皇福寺金佛立像의 一·三、 또는 拜里三體佛의 一·三、三에 가까운 비율이라 하겠다. 그러나 碧桃山三尊들은 모두 一·四·四인데, 八세기도 中期로 접어들어 제작된 甘山寺阿彌陀 또는 掘佛寺阿彌陀, 栢栗寺藥師像 등의 一·四를 넘어서는 비율과 同率로 되었다.

이러한 比率은 체구의 洗鍊도와 함께 七〇〇년을 넘지 않는 統一기와 八세기 중엽의 制作인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두째로 浮彫의 面에서 본다면, 西岳三尊이나 碧桃山三尊은 같은 磨崖佛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西岳佛은 훨씬 高浮彫되고 있다. 즉 머리나 上體의 「레리프」는 거의 圓刻像에 가까운데 이것은 좌·우보살들이 원각상으로 처리된 점과도 연관된다고 본다. 물론 掘佛寺佛의 西面三尊이 이와 흡사하지만 레리프의 深度는 이것이 훨씬 깊다. 이러한 수법은 아마도 奉化北枝里磨崖佛과 거의 유사하며, 榮州可與里佛 또는

拜里三體佛의 本尊과 直結된다고 본다.

여기에 비하면 碧桃山三尊像은 레리프의 深度가 훨씬 약하며, 下體로 내려올수록 더욱 체감되는데, 이 점은 좌·우보살들에서 보다 현저히 나타난다. 岩面을 조금 과서 岩面과 彫刻이 같은 레벨이 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八세기 중엽부터 등장하던 磨崖佛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이러한 점은 線의 표현에서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西岳本尊의 선은 명확하고, 그리고 遒勁하다. 코와 입, 또는 턱이나 뺨에서 현저히 나타난 힘은 강직한 선의 작용 때문이다. 여기에 미소를 첨가시키므로서 古拙하고 破格的인 佛顔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斷石山本尊 또는 拜里三體佛本尊과 相通되는 수법일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목과 어깨로 해서 내려온 윤곽선에서도, 또는 손의 명쾌한 층선에 서도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 衣紋線은 비록 層段이 현저해 진 것은 아니지만 U形의 衣紋線이 묵직하고 장중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것은 손에서 내려진 자락과 함께 三體佛의 그것과 유사하다. 다만 층단이 없 어지고 陰刻線의 인 데로 진전된 것이 다를 뿐이다. 보살상도 그 얼굴의 선은 본존과 유사하게 탄력이 충만하며 좀 더 부드러운 것은 보살의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신체는 비록 윤곽이 들어나고 그 선이 연약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보살의 「이미지」 때문이며, 어색한 선이나 특히 下體의 生硬한 선의 표현은 本尊과 역시 접근되고 있다. 이것은 목거리의 소박한 표현이나 衣紋의 부드러운 면에서도 생경한 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이 팔에서 내려온 두 가닥의 天衣주름과 함께 軍威三體佛의 보살상에 접근되는 요점이다. 특히 西岳石槨墳의 石扉像과는 깊은 친연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서로 至近거리 에 있는 같은 系統의 수법인 것을 짐작케 해준다.

그런데 碧桃山三尊佛의 선은 이것에서 일변하여 유려하고 장식적인 것으로 된다. 얼굴이나 신체의 선은 원만하고 풍려하게 표현되었고, 衣紋의 線 역시 세련되긴 하여도 장식화가 현저하다. 힘이랄까, 소박성이랄까, 그런 명확한 線이 여기서 거의 사라졌던 것이다.

염료로 변린 발과 여기에 따라 내려진 裙衣의 색은 형식적인 수법이며, 이러한 수법이 결국 새로운 스타일을 예견하는 요소들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왔듯이 두 三尊像 사이에는 스타일적인 차이가 현저하다. 이것은 世代 차이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양식적 변화라고 생각된다. 卽, 西岳三尊은 斷石山佛과 깊은 親緣을 가지면서 이것을 이어 받고, 멀리는 奉化北枝里佛, 軍威三尊佛의 수법이 나타나고, 가까운 拜里三尊佛과 그 作風을 같이 하면서 좀 더 진전된, 말하자면 統一初期(七세기 후반)의 作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면 碧桃山三尊은 八세기 初에 완성된 新羅彫刻의 理想型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甘山寺佛에서 定型된 스타일이 掘佛寺佛 또는 七佛庵佛 등으로 진전되었다가, 여기서 보는 따위의 우수한 作品을 남기었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七세기 중엽을 좀 넘어선 作品이라 생각되어진다.

이처럼 두 불상 사이에는 스타일적인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系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이 두 三尊과 斷石山石窟 諸像과 비교하면 쉽사리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仙桃와 碧桃山の 中間地點인 西岳石槨墳에서 출토된 石扉像④과 대비하면 그와 같은 느낌을 한층 느낄 수 있다. 형태나 선, 그리고 衣文주름이나 목거리장식 등은 西岳佛의 이며, 연화문, 발의 표현 등 세부수법은 碧桃山三尊의인 스타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慶州 西部地域의 彫刻系統을 세운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松花山半跏像 또는 기타 圓刻像들도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三、西岳系佛像의 性格

앞에서 우리는 西岳系의 두 三尊이 모두 阿彌陀三尊인 것을 살펴 보았다. 彌陀佛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佛敎에서는 來世를 主宰하는 부처님이다. 來世佛이 彌陀佛 한 분 뿐만은 결코 아니지만 佛敎의 傳播에 따라 彌陀佛만이 유독 來世佛로 많이 신앙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이유

가 분명히 있었다. 이와 같은 사상이 아주 보편화된 것은 隋·唐을 경과 하면서부터였다. 이 때부터 阿彌陀信仰이 全佛敎를 석권하였으며, 수많은 阿彌陀尊像이 만들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하여 머나먼 서쪽, 평화와 安樂이 충만한 나라에 대한 동경은 건잡을 수 없이人間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었다. 來世에는 반드시 평화와 안식이 있는 西方極樂에 태어나고자 하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阿彌陀佛을 조성하고 또는 항상 稱念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來世的인 彌陀佛이 여기 西岳의 頂上과, 그리고 至近한 碧桃山에 각각 彫刻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經추의 西部가 갖고 있는 來世的인 뜻과, 西岳을 중시하여 集中되고 있는 佛敎篤信諸王의 陵, 또는 武烈王系의 諸陵, 더 나아가서 西岳과 牟梁의 古墳들과 어떤 因果關係는 없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상호간에 떼어 수 없는 因果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西岳의 頂上에 자리잡고 있는 이 三尊은 바로 武烈王系의 陵을 바라보고 있다. 말하자면 이 阿彌陀는 그들 金氏諸陵을 굽어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 陵의 서쪽(西北이지만)의 하늘로 우리러 보는 셈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 金氏王族의 來世를 기원하기 위하여 이 阿彌陀佛이 造成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石窟佛像도 역시 文武王을 위시한 그들 一族들의 願佛로 造成되었는데, 石窟庵의 本尊이 곧 東으로 文武王陵을 향하여 正對한다는 사실과 흡사한 일이라고 생각된다⑤。石窟庵本尊은 文武王을 위하여, 그리고 이 西岳彌陀는 武烈王을 위하여, 造成된 것은 時代的 또는 思想的인 同一性을 직결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점은 金仁問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仁容寺에 彌陀道場을 開設했다는⑥ 사실에서 보다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武烈王의 일개 王子에 불과하였던 金仁問을 위하여 彌陀道場을 개설하고, 또한 여기에 거대한 彌陀三尊을 造成하지 않았을리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서쪽에서 굽어 살필 수 있는 이 西岳頂上의 阿彌陀佛일 것이다.

이 阿彌陀佛은 金氏一族의 願佛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혹은 모든 慶州人들의 願佛이었을 可能性도 있다. 경주의 西方은 바로 西方極樂을 의미하였는데 거기의 聖山 西岳의 頂上에 있는 거대한 阿彌陀佛은 곧 西方極樂의 阿彌陀佛로 받아들였을 것은 당연하였다고 생각된다. 彌陀佛의 심볼은 곧 이 西岳의 彌陀佛이었다고 믿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碧桃山の 彌陀三尊도 來世의 願佛로 造成되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서는 王陵 등을 위하는 것이었는지, 혹은 어느 貴族 封墳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毛良의 一般民衆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지금 당장에는 잘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거기에는 來世의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八세기 중엽의 추세로 보아 庶民들의 歸依佛, 말하자면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던 부처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力點을 두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景德王代에 彌陀信仰이 庶民生活에 완전히 뿌리박던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 牟梁部가 統一期로부터 완전히 庶民社會層을 이루었던 점으로 보아 孫順埋兒의 예처럼 그들의 간절한 願望을 이 彌陀佛에 具現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推論이 가능하다면 西岳의 彌陀는 金氏專制王權의 願佛로 造成되었고 碧桃山彌陀像은 專制王權에 의하여 몰락된 그들 庶民層의 희망의 심볼로 造成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⑦. 이 점은 앞으로 좀 더 고찰해야만 될 것이다.

#### 四、結 語

西岳系의 佛敎彫刻을 다루면서 이렇게 두 佛像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면 그것은 정말 소략한 감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우선 이들 二尊像이 다 같이 彌陀佛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경주의 西部가 가지는 본래의 뜻과 합치되므로 그 性格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반면에 시대적인 차이에서 오는 상호간의 樣式을 系統的으로 考察할 수 있기 때문에 빌로 本意에서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여기서 우리는 이 西岳系의 佛像樣式을 미흡한 대로나마 대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불상들이 가지는 성격에 대해서도 하나의 試論의인 해답이나마 얻으려고 노력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같은 西岳系佛像彫刻을 총망라하고 나아가 慶州의 諸佛像彫刻을 고찰하여 하나의 慶州彫刻流派를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하는 바이다.

#### (註)

① 大坂金太郎編의 「慶州遺跡及び 遺物調査書」에 의하면 一九三〇년에 大坂에 의하여 調査되었고, 一九三四년에는 寶物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② 秦弘燮·慶州西岳里 磨崖佛의 脇侍菩薩(美術資料 第六號).

③ 大坂金太郎·前掲書の「栗洞里磨崖佛」.

④ 朝鮮古蹟圖譜三 Plate 一一二

⑤ 黃壽永·石窟庵의 創建과沿革(歷史教育八집)

⑥ 三國遺事 卷一 文虎王法敏條

⑦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論理構成上의 허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自認한다. 이것은 물론 史料의 不足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仙桃山(西岳)을 중심으로한 牟梁部의 성격을 좀더 철저히 파헤친다면 이런 弱點은 다소 가벼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몇가지 점만 지적해두겠다.

1. 牟梁部는 三國遺事 竹旨郎條에 보이다시피 大靑眞德王頃에 당시의 中央集權層에게 몰락된후 舊族의 基盤이 무너지고 遺事의「孫順埋兒」等に 보이다시피 庶民層社會를 形成하였던 듯하다. 반면 西岳을 중심으로 金氏의 專制王權勢力이 크게 대두 되었을 것이다.

2. 牟梁은 저문들 즉 西쪽의 뜻이 있고 西岳역시 新羅의 小祭를 지내던 곳이므로 佛敎傳來 이후에는 佛敎의 西方極樂의인 이미지와 결합되어 특히 阿彌陀의 性格이 강하게 되었을 것이다.

3. 그리하여 여기의 무수한 古墳群들 그리고 여러 金氏王族의 무덤들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